



무알콜 음료, 중동부터 MZ세대까지

중동 무알콜 음료 성장세

BMI Research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UAE 무알콜 음료시장의 규모는 2015년 177.4만 달러(한화 약 21억 원)에서 2019년 207.8만 달러(한화 약 247억 원)로 성장하였다. 또한 유로모니터가 조사한 무알콜 맥주의 2020년 시장규모에 따른 순위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6천 6백 6십만 리터), 2위는 이라크(1천 3백만 리터), 3위가 UAE(850만 리터)였다. 현지 유통업체 웨이트로즈(Waitrose)는 2021년 식음료 보고서에서 “무알콜 음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무슬림 국가에서 '무알콜' 음료 섭취가능



최근 현지 매체에서는 지속적인 중동시장의 무알콜 음료 수요를 고려한 시장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현지 기사에 따르면 다수의 외식업체들이 무알콜 음료를 활용한 메뉴를 많이 선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알콜 음료가 맛있는 식당들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목테일(Mocktail)과 할랄 와인의 경우, 율법상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무슬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음료로 음주문화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1 현지 식당에서 선보이는 피나콜라다와 패션프루츠 목테일(Mocktail)

2 외식업체 믹솔로지스트(Mixologist)가 무알콜 음료로 칵테일을 제조법을 공유하고 있다.

자료 내셔널뉴스, 드라이스토어

무알콜 음료 제품의 중동 진출

작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한 드링크드라이스토어(DrinkDry Store) 설립자인 에리카 도이레(Erika Blazeveciute Doyle)는 “UAE에서 무알콜 음료 소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무알콜 음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전

하면서 “비음주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없었다”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녀는 “창업 한 달 만에 치솟는 주문량으로 인해 항공 운송을 진행해야했으며 지난 10여 개월 동안 사업이 성장해 올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지 매장에서
유통 중인 무알콜 맥주



바비칸

용량 330ml
원산지 UAE
가격 1천2백원



에스테렐라

용량 250ml
원산지 스페인
가격 3천2백원



하이네켄

용량 330ml
원산지 네덜란드
가격 2천7백원



홀스터

용량 330ml
원산지 프랑스
가격 1천9백원



바바리아 (4.80 AED)

용량 330ml
원산지 네덜란드
가격 1천5백원

프리미엄 무알콜 음료 상품 목록

NATUREO

품목 알콜 와인
원산지 스페인
용량 750ml
가격 1만2천원



BAX BOTANICS

특징 설탕/글루틴프리 진
(Gin)
원산지 영국
용량 500ml
가격 3만4천원



MOJITO

품목 2016년 걸프푸드
최고의 무알콜 상품 수상
원산지 오스트리아
용량 250ml
가격 4천7백원



ALAVIE

특징 제로칼로리/
유기농 스파클링
와인
원산지 프랑스
용량 750ml
가격 4만7천원



현지 인기 무알콜 제품 소개

현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무알콜 맥주 제조사는 바비칸(Barbican)으로 1983년부터 중동지역에 해당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중동 내 유일무이한 현지 무알콜 음료 제조 업체이기도 하다. 전체 음료 판매량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제조 판매가 되므로 타 수입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맥주 본연의 맛이 나는 보리맛과 더불어 8가지 향(복숭아, 라즈베리, 딸기, 파인애플, 망고&패션프루츠, 사과, 석류, 레몬)을 첨가한 상품군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였다.

2017년에 무알콜 맥주를 내놓은 하이네켄은 한 병당 69칼로리의 낮은 열량을 강조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 네덜란드, 프랑스 지역에서 제조된 무알콜 맥주들이 현지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비음주 문화의 선도주자,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잡아라!

비음주 문화는 밀레니엄(Millennial) 세대와 Z세대(Gen-Z) 세대에서 꾸준한 소비를 보여왔다. 음료 전문 유통매체에 따르면, Z세대들의 알코올 섭취량은 베이비부머 시대 및 X세대들에 비해 알코올 섭취가 낮았던 밀레니엄 세대보다도 약 20% 정도 낮은 비율이었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는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 무알콜 맥주와 칵테일 판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미국에서만 전년대비 2020년 약 44%의 판매 성장을 보였고 향후 무알콜 음료의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290억 달러(한화 약 34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무알콜 음료는 다양한 기능을 첨가하여 무가당, 제로칼로리, 유기농 등의 건강한 컨셉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받고 있다.

작성자 두바이지사 진현정

Key Point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세계에서 온라인 플랫폼 주문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성공 비결은 무슬림 고객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들의 비음주 문화 및 건강한 선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온라인 매장의 이점을 100%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aT두바이지사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 이용해 보니 최소 주문비용과 주문시간을 활용하여 무료배송과 당일 배송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을 파악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고객상담을 통해 주문, 결제, 배송이 한 번에 차질없이 이루어져 배송 후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현지인들의 기대도 충족하고 있다.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진출하려면 다양한 무알콜 음료 보급과 제품군의 확대를 고민해본다면 무슬림 국가들을 대상으로 음료시장 진출가능성이 타 국가보다 클 것이라 사료된다.